

# [단독] "나한테 무릎 꿇을 것들이"...경찰대생 음주 난동

기사입력 2020-01-23 13:18 최종수정 2020-01-23 17:15



경찰대학교 재학생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조사받고 있습니다.

서울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21살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박 씨는 어젯밤 11시쯤, 서울 영등포동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박 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캐묻자 5년 뒤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또, 출동한 현직 경찰관의 목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한 상태는 아니라며 조만간 박 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, 경찰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

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

www.ytn.co.kr

- ▶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
-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
- ▶ 2020년 YTN 공식 다이어리&캘린더를 받고 싶다면?

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52&aid=0001391895>

---